

<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지금은 ‘듣고 실천하는 시대’ 다. ‘실습 시대’ 다. - 이 기간에 계속 실습하고, 거듭해서 행해야 된다.
2. <행하는 것>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.
3. <운동할 때>도 거듭해서 해야 숙달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듯, 이와 같이 <행할 때>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. 계속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.
4. 선생도 잘하게 될 때까지 거듭해서 행했다. <수도 생활하는 기간> 중에 ‘행하는 기간’ 이 있었다. 그때 성자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하면서 전도하고, 외치고,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해 주고,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영들을 쫓아내 주기도 했다. <듣고 배운 것>을 가지고 실제로 ‘실천’ 한 것이었다. 그때 각종각색으로 실천할 것이 있었다. <차>가 없어도 뛰어다니면서 행했다. 그러니 나중에는 50km 거리도 순간 다니고, <차>보다도 빠르게 다녔다.
5. <못하는 사람>도 잘하게 될 때까지 자꾸 또 하고, 또 해야 된다.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, 성공하게 된다.
6. <배구할 때>도, <테니스할 때>도, <축구할 때>도 못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계속 하다 보면, 결국 성공하게 된다.

7. 계속 하면, 된다.

8. 반복해서 아예 숙달되게 하는 것이다.

9. 배우고 실습하고, 또 배우고 실습하고, 또 배우고 실습해야 된다.
지금은 이같이 하는 기간이다.

10. 이때 하나 되어 하지 않으면, 뒤쳐져버린다. 그러니 모두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하여라.

11. <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>도 계속 하다 보면 나오게 된다. 계속 나오는 실습을 하다 보면, ‘과거에 잘 못 나오던 사람’도 나오게 된다. 형식으로 나오든지, 외식으로 나오든지, 진실로 나오든지 나오기만 해라. 그리하면 하나님도 주도 책임지고 말씀하시고, 성령님도 감동을 주시어 <형식과 외식>을 ‘진실과 온전함과 기쁨’으로 만들어 놓으신다.

12. 자꾸 ‘실습’ 하여라.

13.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행하니 잘 되고,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.

14. 섭리사 사람들은 ‘학생’과 같다. <영적인 세계의 학생들>로서, ‘영적인 학교’를 다니는 것과 같다. 고로 선생은 계속 여러 가지 강의, 곧 ‘말씀’을 해 주며 가르쳐준다.<예수님의 설

교>도 ‘가르치는 설교’였다. <모르는 것>을 가르치고, 난절하게 쪼개는 설교였다.

◎ 계속해서 <실천>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15. 자기 성격을 고치고, ‘실천주의 사상’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.

16. <관념주의>는 ‘생각’만 하는 것이다.<실천주의>는 ‘생각한 것을 실천해 버리는 것’이다.

17. <철학>에는 두 가지가 있다. <관념철학>과 <실천철학>이다. 또한 <형이하학적인 것>과 <형이상학적인 것>이 있다. - 이 두 가지가 하나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. 그러나 <섭리사>는 두 가지가 하나 되어 ‘근본 세계’를 모두 이뤘다. 고로 <철학의 할아버지>요, <철학의 근본자들>이 되었다.

18. <철학>이 무엇이나. ‘인생을 논하는 것’이다. <인생을 논하는 것>이란 ‘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,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’이다. 고로 <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>은 ‘근본 문제’도 해결하고, 세상의 어떤 관념도 ‘실천’으로 이루었으니, 다 한 것이다. <핵심적인 것>을 이루었으니, 그에 따르는 것도 다 한 것이다.

19. <하나님의 세계>는 ‘생활’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다. <만물>에 대해 배우고, <인생>에 대해 배우고, <심리>에 대해 배우면

서 ‘인생의 모든 것들’ 을 자꾸 배우는 것이다.

20. <세상의 학문>도 ‘영의 세계’ 에 가서 보면 거의 상식으로 다 안다. <학자들이 배운 것>보다 ‘영의 세계’ 에 가서 보면 더 많이 배운다.

21. <가장 큰 일>은 ‘우리 인생’ 에 대해 배우고, ‘창조자 하나님’ 에 대해 배워서 그와 하나 되는 일이다. <하나님의 사랑의 대상>이 되면,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. 고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. <필요 없는 일> 때문에 인생 허송세월 지나가고, 손해가 간다.

22.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아라. 꼭 필요한 것만 하고, 필요 없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.

◎ 지금 선생은 섭리사 전체를 보며

<인생사는 것>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

그러니 선생과 특별히 개인으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.

왜요?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성령님도 그때마다 행해주시기 때문입니다.

혹은 안 물어 봐도 가다 보면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.

선생도 궁금한 것이 많았으나, 결국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. 이 사야 46장 11절 말씀과 같이 정녕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.

‘나는 무엇을 할까?’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?

언젠가 선생이 ‘전체 면담’ 을 해 주겠습니다.

◎ 계속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23. <무서운 생각>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. <무서운 생각>을 가지고,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. 유치등부도, 중고등부도, 대학부도, 청년부도, 가정국도, 장년부도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.

24. 자기를 만들기에 따라 쓰여지니,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라.

25. 늘 하나님과 성령님께 묻고 대화하여라.

26. 언제든지 “성령님~” 하고 부르면, 성령님은 항상 “말해 봐.” 하신다. 이것을 100% 믿고 하여라.

27. 자기가 열심히 일 할 때 성령님께 물으면, 성령님은 꼭 하나하나 대답해 주신다. 정신을 더 강하게 집중하면, 느낌과 감동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고, 대화할 수 있다.

28. <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>도 처음에는 ‘자기 의지 대화’다. 거기서 차원을 높이면 ‘성령의 감동으로 대화’ 한다.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직접 만물로 보이면서 무섭고 따끔하게 교육하기도 하신다. - 이같은 대화를 생활 속에서 늘 해 나가야 된다.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, 모두 부지런히 실천하여라.

29. 지금은 ‘듣고 실습하는 시대’ 다. 계속 말씀을 듣고, 열심히

뛰고 달리며 실천하여라.

30. <열심, 노력, 타산> - 이 세 가지가 성공하는 비법이다. <열심>을 내며 행하고, 노력해야 된다. <노력>하면,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. 그리고 <타산>이 맞는지, 안 맞는지 늘 생활 속에서 따져보고 계산하여라.